

# 위하수증 (胃下垂症)과 그 대책



高 尙 道

## 건강한 사람도 위하수가

위를 X선검사로 관찰할 때 조영제(造影劑)를 먹고 환자가 서있을 경우 위하극(胃下極)이 골반 내에 내려가있는 것을 쉽게 말하여 위하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위하수나 결장하수(結腸下垂)를 흔히 볼수 있다. 또한 위하수가 있더라도 하등의 병적조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하수만 가지고서 이것을 병이라고는 할수 없기이다. 더욱 구미학과(歐美學派)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위하수가 많으므로 한개의 질환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줄로 생각한다.

## 신경적인 것과 二次性으로 보는것

[특징] 위하수는 이것을 원발성 체질성위하수(原發性體質性胃下垂) 즉 내장하수증(內臟下垂症)으로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 二次성 위하수의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흔히 증상이 없고 내인성(內因性) 및 외인성(外因性)의 여러가지 장애인자를 받기 쉽고 또 신경증(神經症)이나 심신증(心身症)의 경향이 있다.

그리고 후자는 뇌하수체부전(腦下垂體不全), Addison's 병, 갑상선 기능항진 같은 내분비성으로 오는 전신수척 또는 임신을 자주 한다던가 복수천과 복강내종류수술을 한 다음에 오는복벽근육이완, 장간막 지방감소등에 의하는 수가 많다.

이때는 거의 위긴장저하(胃緊張低下)가 있으며 증상을 나타내는것이 많다. 그러나 위하수는 증상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위질환 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신적인 병(全身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한편 위장증상이 심하여 위의 위치이상이나 위질환으로서 위하수를 생각 할수도 있다. 흔히 여자에게 많다.

## 식욕이 없고 허벅지가 무거워

[임상소견] 위하수증에서 모든 증상은 오목가슴이 눌리우는 것 같기도하고 한국성이며 단시간 계속되

는 부통, 과로한 후에 오는 구역, 트림, 구토, 또는 식욕이 없어 지든가 만성변비 등이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는 등이 아프든가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고관절(股關節)이나 허벅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타 전신증상도 나타난다.

이런때 목대나 쿨센을 하면 훨씬 편할 때가 있다. 간혹 임신 후반기에는 이런 증상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것을 흔히 위하수증상(胃下垂症狀)이라고 한다. 위하수가 있는 경우 대개는 무력체형(無力体型)이며 몸이 수척되어 있고 서있으면 하복부가 팽류 되는 것을 보는수가 많다.

### 흔히 X선으로 진찰하지만

[진단] 흔히 X선검사로서 확인된다. 복부진찰로서 식후 1~2시간이 지나더라도 출렁출렁하는 소리를 촉진으로서 들리기도 한다. 흔히 무력체형에 빼빼마른 사람인 여자에 많으며 이런것이 참고가 된다.

X선검사로서는 여러가지 판정규칙이 있으나 전문적인 것은 생략한다.

더욱 X선검사로서 암, 궤양등의 기질적질환을 제외하고 판정해야 한다.

한편 신경증이나 심신증(心身症) 경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 이와 동시에 존재 하는 질환을 검사하여 2차성위하수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2차성위하수를 Glenard 수기

로서 간단히 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환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하복부를 추켜 올리면 이주 편하게 환자가 느끼게 된다는 수기이다.

### 증상이 없는수가 대부분

[결과와예후] 위하수는 증상이 없는 것이 많으나 증상이 있을때 치료하면 대부분은 좋아진다.

그러나 위하수증은 여러가지 내인성 또는 외인성 인자로서 위장증상을 되풀이되기 쉬우므로 주기성을 띠우기 쉽다. 과로 특히 육체적 노동으로서 악화되기도 한다.

### 적당한 운동과 원인요법으로

[치료] 위하수에는 원인요법도 필요하나 복벽근(腹壁筋) 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빼빼마른 사람에게서는 장간막지방(腸間膜脂肪)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표준체중은 유지하도록 식사에 노력한다.

위하수에서 위장증상이 심할때는 안정, 충분한 수면, 정상적배변에 주의한다. 대중적으로 만성위염을 치료하는것도 필요하다.

더욱 식욕이 없을때는 식욕항진제를 쓰는 방법도 있다. 신경증이나 심신증에 대한 치료도 무시하여서는 않된다. 더욱 앞서 말한바와같이 2차성위하수인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요법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필자 = 고려의대 소화기내과 교수·의박>